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5일 23시 31분



목차

| | |
|------------------------|---|
| 목차 | 2 |
| 해명자료 | 3 |
| 3여통합 기념사업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 3 |

보도자료

해명자료

3여통합 기념사업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2013.04.04 조회수 1,503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담당자 이영민

우후죽순 기념물...시장 치적용?

여수시내 곳곳에 각종 기념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치적용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3려 통합을 기념해 15억 5천만 원짜리 종과 9억 원짜리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3여통합 기념사업이 시장 치적용이므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은 3여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폄하시키는 것임.

○ 종 건립이나 기념조형물 설치 등 3여통합 기념사업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1997년 9월 9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하나로 통합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이미 1999년과 2009년에도 검토 된 바 있음.

○ 3여통합은 통합과 화합의 위대한 시민정신에 기초하여 15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2012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개최의 기반이 되었으며, 따라서 3여통합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러한 큰 틀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임.

기부를 받아 만든 이순신 동상에도...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 표지석에도... 새로 만드는 조형물마다 시장은 자기 이름을 보란듯 새겼습니다.

○ 여수시장 김충석 이름이 새겨진 시민로 표지석과 성웅 이충무공동상 건립기, 주재년 열사 기념관 기념비 등 세 곳의 글은 김충석 시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글의 지은이로서, 그리고 용기공원 준공비는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표기한 것임.

○ 충민로와 석창지하차도, 상암로, 좌수영다리 등 나머지 네 곳의 표지석에는 “여수시장” 표기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조형물 마다 치적홍보용으로 이름을 새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전글

다음글

공약사항(관용차) 관련 언론보도 해명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